

사회운동의 공간성: 사회운동연구에 있어서 지리학적 기여에 대한 탐색

정현주*

Towards the Spatiality of Social Movements: Exploring Geographical Contributions to the Study of Social Movements

Hyunjoo Jung*

요약 : 본 논문은 현대 사회운동 연구의 대표적인 접근법인 자원동원이론, 프레임이론, 신사회운동이론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비교·고찰하며 이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운동의 공간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현대 사회운동 연구의 주류 패러다임을 형성해 온 자원동원이론과 프레임 이론은 최근 논쟁정치 연구로 통합되고 있는데 이들은 사회운동의 동원과 전략, 정치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운동의 원리와 일반적인 법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전략적인 측면에 치우쳐 사회운동의 동인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개발하지 못하였고 이는 사회운동의 과정과 맥락에 대한 인식부족을 가져왔다. 신사회운동 이론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발발을 거시적이고 구조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추상적이고 대상지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노정해 왔다. 사회운동의 공간성에 대한 연구는 사회운동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며 사회운동을 촉발시킨 갈등구조가 형성되고 집단행동이 조직되는 국지적 맥락에 대한 풍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또한 공간의 물리적 구조와 상징성은 운동의 규모와 방법을 제한하며 사회운동에 의해 활용되기도 하는 전략적 매개체이다. 사회운동의 공간성은 사회운동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설명해주는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

주요어 : 사회운동, 사회운동의 공간성, 자원동원이론, 프레임이론, 신사회운동이론.

Abstract : The paper critically examines resource mobilization theories, frame theory, and new social movement theories, and proposes studies on the spatiality of the social movements as one potential to mitigate the limitation in these theories. The resource mobilization theories and the frame theory, the strategy-oriented approaches, lack contextual understandings of the origin of social movements. While new social movement theories provide macro-scale analysis and the structural explanations of the origins of social movements, they have covered limited geographical areas. The spatiality of social movements promotes deep understandings of local differences, and contexts in and through which grievances are constructed and collective actions are organized. Physical structures and symbolic representations of places are often created and utilized as social movement strategies. The spatiality of social movements can be a useful conceptual tool to explain the diversity and the dynamics of social movements.

Key Words : social movements, spatiality of social movements, resource mobilization theories, frame theory, new social movement theories.

* 건국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Research fellow, Research Institute for Basic Sciences, Konkuk University), jung0072@gmail.com

1.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사회운동은 근대 시민사회가 성립된 이후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정치적 동력이 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사회운동이라 함은 공공선을 위하여 제도정치권 밖의 주체들이 비제도적인 방법(가령 시위)을 동원하는 정치적 집단행동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운동 조직에 의하여 지속적이고 전문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사회운동은 그 개념과 방법, 주체와 목적들이 다원화되고 있으며 현대 시민사회의 다양한 담론을 형성함은 물론, 제도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사회운동의 특징과 그 역할의 변화는 사회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사회운동 연구는 사회 변화와 그 역동성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시민혁명으로 그 문을 연 서구 민주주의의 발달은 사회운동의 발달 및 다원화와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 일찍부터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발달을 경험한 서구에서는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가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서 성장해 왔으며 다각적인 간학문적 노력이 축적되어 왔다. 사회운동이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사회운동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집단행동이론의 등장 이후이다. 이 이론은 사회운동을 사회의 균형을 파괴하는 간헐적이고 예외적인 집단적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집단적 일탈 행위를 부추기는 역사적, 사회적 조건 및 참가자들의 심리적 상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논리실증주의의 발달과 함께 사회과학 전반에 과학적 접근의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사회운동 연구도 이러한 새로운 조류의 적극적인 참가자가 되었으며, 사회운동은 이들에 의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을 자원동원이론이라 부르는데 이는 정치과정이론 등으로 발전되었으며 이후 등장한 프레임이론과 더불어 북미학계의 주류 패러다임을 형성하였다. 197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등장한 신사회운동이론은 사회운동 연구의 주류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며 사회운동 연구의 다원화를 주도하였다. 현재 사회운동 연구는 최근에 등장한

신사회운동에 대한 학계의 높은 관심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원동원이론의 하위 이론들과 프레임이론이 논쟁정치(contentious politics)라는 새로운 담론의 틀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다.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학자들의 참여로 인한 다양한 주제의 흡수와 사회운동이라는 현상 자체의 역동성은 사회운동 연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내부접점으로 이어졌다. 그 한 예가 대표적인 사회운동 연구가들의 공동 작업으로 출판된 *Silence and Voice in the Study of Contentious Politics*(2001)이다. 이 책 서론의 저자이자 사회운동 연구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Tarrow(2001)는 사회운동 연구가 그동안 간과해 온 몇 가지 주제를 제시하면서 사회운동의 공간성에 대한 공백을 비중 있게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같은 책의 또 다른 장에서는 Sewell(2001)이 공간의 특징과 형태가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공간, 장소, 스케일 등 지리학적 개념들이 사회운동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인식의 결과이다. 사회운동의 공간성이 최근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라는 전 지구적인 정치경제 체제의 개편은 이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저항의 스케일을 변화시켰다. 가령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 NGO들과 개인들이 연대하여 반세계화 운동을 조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무선통신기술의 발달은 사회운동 단체가 스케일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스케일의 정치가 주요 이슈로 등장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다. 어떤 스케일에서 운동을 전개할 것이냐는 ‘스케일 프레임’ (Kurtz, 2003)은 사회운동을 조직할 때 반드시 결정해야 될 선택이자 핵심적 전략이 되었다.

둘째, 미시적인 스케일에서 집회와 시위 등은 공간 구조에 큰 영향을 받는다. 저항의 규모와 그 효율성은 공간의 물리적 환경(가령 건물 구조나 도로망 연결, 접근성, 개방형 공간의 규모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제한되며, 권력기관은 이를 통제하기도 하며, 저항 세력은 이를 역이용하기도 한다. 즉, 구체적인 동원은 미시공간의 구조와 상징성을 활용하는 공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 전략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회운동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으며, 사회운동의 다양성과 역동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최근의 논쟁정치 연구는 이에 대한 보완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현대사회는 가히 사회운동의 시대라 불릴 만큼 시민사회의 정치참여가 활발하다. 특히 현대 시민사회 정치의 특징은 경계를 넘나드는 연대뿐만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운동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즉, 사회운동은 세계화 되고 있는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지역화 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운동의 지역화 또는 지방화 경향은 지역의 특수한 갈등구조와 사회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요구한다. 지역사회 및 장소적 맥락은 사회운동의 다양성과 차이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사회운동의 공간성에 대한 지리학자들의 참여는 매우 미진하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 선구적인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Geographies of Resistance(Pile and Keith, 1997)*는 사회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저항적 집단행동을 공간적 관점에서 분석한 거의 최초의 저서이다. 이후 Miller(2000)는 *Geography and Social Movements* 책을 통해 사회운동에서 공간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이 책은 사회운동에 대한 이론을 지리학 관점에서 분석하고, 지리학의 공간 이론을 사회운동 연구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지리학과 사회운동 연구의 학문적 의사소통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사회운동의 공간성에 대한 연구는 스케일 정치 연구의 활성화와 더불어 일부 지리학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스케일 정치야말로 사회운동의 대표적인 공간 전략으로서 현대 사회운동의 공간적 역동성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지리학자들의 사회운동 이론 구축과 실제 경험연구에 대한 개입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사회운동의 공간성 연구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개발 분야로 남아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운동 연구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공간성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운동의 공간성이 무엇인지조차 아직 합의되지 않

은 초기 단계이므로, 본고는 공간성에 대한 정의와 구명보다는 공간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통찰력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사회운동 연구의 대표적인 접근법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사회운동의 공간성에 대한 연구가 이들이 가진 공백과 한계를 어떤 부분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지 그 접합 지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현대 사회운동 연구의 대표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자원동원이론, 프레임이론, 신사회운동이론을 분석의 1차 대상으로 한다. 자원동원이론과 프레임이론은 사회운동을 분석하는 틀로서 중범위 이론에 해당되며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신사회운동이론은 최근 사회운동의 특징을 거시적 관점에서 설명해주는 이론으로서 양자는 이론의 범위 및 대상이나 이론화 방법이 상이한 접근법이다. 따라서 이들을 동일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느 이론이 더욱 설득력 있는지를 가리는 것은 본 논문의 목적이 아님을 밝혀둔다. 본 논문은 각 이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사회운동의 공간성에 대한 연구가 각 이론의 공백과 한계를 극복하는데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의 2차적인 대상은 사회운동의 공간성을 주제로 한 저작물로서 학문 분야에 상관없이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지리학 연구물이 다수 포함되었다. 사회운동의 공간성은 현재까지 소수의 연구물만이 나와 있는 실정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사회운동 연구와 학문적인 교류가 없었던 탓에 이 분야 연구가들에 의해 주목받지 못했거나 사회운동 연구에서 발달시킨 개념들을 수용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사회운동 연구와 지리학을 포함한 타 분야에서의 연구들이 학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자 시작되었다. 특히 사회운동 연구에 수용되지 못한 지리학내의 연구물 중 사회운동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해 주는 개념과 관점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사회운동 연구로의 접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ies)

1) 자원동원이론의 특징과 발달

자원동원이론은 고전적 사회운동 이론인 집단행동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1960년대부터 등장하여 현재까지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이론이다. 사회운동을 일시적이고 비체계적인 개인의 일탈행위의 집합으로 규정하여 개인의 불만이 가장 극심하게 축적되고 비이성적인 일탈행위가 팽배한 위기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사회운동이 일어난다고 주장한 집단행동이론과는 달리, 자원동원이론은 사회운동을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정치행위로 규정하고, 사회운동을 이성적인 개인들에 의한 의도적인, 즉 예측 가능한 정치행위로 간주한다. 자원동원이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불만과 분노와 같은 사회심리적인 요인의 강도에 따라 사회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조직이 자원을 동원하여 분노의 표출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때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운동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보다는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연구의 초점이 주어진다.

자원동원이론은 크게 세 가지 접근으로 발달해 왔는데 이 세 가지 접근방식은 상호 비판적이면서도 보완적인 형태로 발전해 왔다. 자원동원이론의 원조 격인 기업가주의이론(entrepreneurial theory), 자원동원이론을 가장 발전시킨 정치과정이론(political process theory), 그리고 최근 통합적인 접근을 취하며 이전의 이론들을 보완한 논쟁정치연구(study of contentious politics)가 대표적인 자원동원이론의 하위 이론들이다.

기업가주의이론을 발전시킨 McCarthy와 Zald는 불만과 분노는 일상적으로 팽배해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사회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며, 사회운동조직의 가용자원 동원 여부에 따라 사회운동의 성패가 달려 있

다고 주장한다(McCarthy and Zald, 1973). 즉, 사회운동은 운동전문가들에 의해 조직되는 목적지향적인 정치 행위이며, 돈, 활동가, 전문 인력, 지도력 등 운동을 조직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자원을 어느 정도 동원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운동이 기업처럼 운영되며 운동가는 기업가처럼 행동한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Olson(1965)의 개인의 이성적 선택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Olson의 이성적 선택이론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분자화 된 개인이 집단행동에 참가하게 되는 경위를 설명하는 경제학 이론으로서, 개인이 집단행동에 참여했을 때 예상되는 이득이 손실을 초과할 때만 참여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것이 집단행동 참여를 위한 관건이 되는데 이를 위하여 경영자(또는 운동조직)는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Olson의 모델은 연구대상이 항상 이성적 판단을 내리며 집단행동 참가 이유가 계산 가능한 물질적 이익이라는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다. 후자는 자원동원이론 주창자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 무수한 비판을 받아 다양한 보완설명이 이루어져 왔다. 가령, 개인은 물질적 보상 외에도 정신적 만족(도덕적 우월감이나 연대의식 고취 등)을 위해 집단행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다(Jenkins, 1983). 그러나 이성적 개인에 대한 전제는 비판을 거의 받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이성적 개인이라는 전제는 집단행동이론에 비해 자원동원이론의 과학적 설명력을 높여주는 장점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성적 판단은 개개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행동에 대한 손실계산(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모든 개인이 정보에 똑같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필요로 한다. 즉, 개개인의 무능력이나 불균등한 권력관계에 의한 행동계약 등 현실적인 제약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이성적 선택이론의 한계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가주의이론의 한계를 나타내며 이는 정치과정 이론가들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었다. 대표적인 정치과정 이론가인 Tilly, McAdam, Tarrow 등은 기업가주의 이론

이 외부조건을 무시하여 사회운동이론을 사회운동조직 이론으로 축소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사회의 정치 환경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정치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야 말로 사회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며, 가용자원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운동 전략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정치기회구조란 사회운동조직이 속해있는 사회의 정치 환경중 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의 유기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McAdam(1982)은 정치기회구조의 4가지 구성요소로 제도정치 개방/폐쇄 정도, 엘리트 계급 연대의 안정성, 사회운동조직과 연대할 수 있는 엘리트 존재 여부, 정부의 탄압 정도를 들었다.

정치과정이론의 가장 큰 기여는 사회운동의 발생과 전개를 단순히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보지 않고 거시적인 정치적 맥락과 연계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치과정이론은 정치적 측면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사회운동의 다른 부분, 특히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리한 정치기회구조가 운동의 빈도와 향배를 결정한다는 전제는 결국 Olson이 주장한 이성적 개인에 대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즉, 유리한 정치기회구조를 심분 활용하는 개인이 정치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고, 성공을 예측할 때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으로 불리한 정치기회구조나 정치적 탄압이 심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회운동의 동인을 규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문화적, 심리적 측면의 간과는 자원동원이론 전반에 대한 수정과 보완으로 이어져 논쟁정치 연구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논쟁정치 연구는 사회운동이라는 용어대신 논쟁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정치적 집단행동을 분석의 범주에 포함시킨다.¹⁾ McAdam, et al(2001)은 자원동원이론의 가장 큰 결함으로 지적된 문화 및 사회심리적 요인을 논쟁정치 분석에 포함시키고자 프레임 이론의 개념들을 흡수하여 이를 “역동적 모델”로 명명하였다. 역동적 모델은 실증주의적 분석틀에 구성주의적 시각을 접목한 것이다. 가령, 주어진 정치기회구조가 집단행동을 자동적으로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주체가 이를

기회 내지는 위협이라고 판정할 때에야 집단행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행동 주체의 자율성을 강조한 역동적 모델은 사회심리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한 이론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구성주의의 부분적인 수용일 뿐 사회운동의 발생과 조직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심리적 측면과 문화적 요인들을 여전히 배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운동가들 사이의 의사소통 형태라든지 집단적인 정체성 형성과 같은 문화적 요인은 운동의 강도와 형태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동원전략이지만 새로운 모델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2) 자원동원이론에 대한 비판

자원동원이론은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운동을 설명하는 주류 이론으로 발전해 왔으며 비판의 수용을 통해 스스로 ‘진화’해 왔다. 자원동원이론은 운동 전략과 전개에 대해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주지만 사회운동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불만은 도처에 팽배해 있고 집단행동은 일상적인 정치행위라는 전제는 사회운동이 왜 일어나는 가라는 질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자원동원이론은 집단행동을 야기한 불만의 성격과 내용에 상관없이 그 불만을 어떤 자원을 동원해서 조직해 내고 어떤 정치기회구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회운동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자원동원이론은 사회운동의 원인에 대한 질문을 사회운동 전략에 관한 질문으로 치환시켜 버렸다(Melucci, 1994).

사회운동의 원인 또는 사회운동의 사회심리적인 요인이 역사적으로 공간적으로 균일하다는 전제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불만과 분노의 강도와 그 내용은 사회운동의 성격과 지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갈등의 내용은 사회운동을 여타 다른 정치적 집단행동과 구분해 주는 가장 큰 지표가 되기도 한다. 시민사회운동이라고도 불리는 현대사회운동은 이익집단에 의한 압력행사 및 로비나 제도 정치권(가령 정당)에 의한 집단행동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나(집회나 시위와 같은 비슷한 동원전략을 쓴다는 점에

서) 그 목적에 있어서 큰 차이를 지닌다. 전자는 공공선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 저항을 조직하며, 후자는 정치권력의 쟁취를 위해 상황에 따라서 갈등을 조직해 낸다. 자원동원이론에서 말하는 일상적인 갈등의 조직과 정치권력의 확보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동원은 제도권내의 정치 행위를 설명하는데 차라리 더 가까운 듯 보인다. 반면, 사회운동조직은 불리한 정치기회구조 속에서도 명분에 따라 저항을 조직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1970-80년대의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은 유신과 독재정권체제라는 매우 불리한 정치기회구조 속에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고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이성적 판단보다 대의명분이나 갈등과 같은 사회심리적인 요인이 사회운동을 일으키는 더욱 강력한 동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의 강도와 성격은 외부적 조건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중요한 요소이며, 갈등의 사회적 구성의 간과야말로 자원동원이론의 가장 큰 공백이라고 볼 수 있다.

갈등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연구의 미비는 자원동원 이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한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첫 번째 한계는 서구중심적인 모델이라는 것이며 두 번째 한계는 지리학적 공백이다. 자원동원이론이 조직과 자원, 기회, 정치권력의 쟁취 등을 강조하며 제도화된 정치행위를 설명하는데 더욱 적합한 이유는 이 이론이 서구 정치 모델(특히 미국)을 바탕으로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오랜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시민 사회의 정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많은 자원을 동원하며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전문적인 NGO가 존재하는 미국의 정치구조 속에서는 제도정치권과 비슷한 패턴의 시민사회운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서구화된 모델은 제3세계나 다른 문화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운동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가령 동남아,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종/종교 분쟁은 유리한 정치기회구조나 동원가능한 자원이 충분했기 때문에 조직된 것이 아니라 이들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정치적 환경 속에서 배태된 갈등이 때로는 조직적으로, 때로는 비조직적으로 분출된 결과이다. 자원동원이론의 최신 모델인 논쟁정치연구는 이러한 점을 일면 보완하고 있지

만, 문화적 차이가 하나의 변수로서만 취급될 뿐 그것의 파급력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도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불감증은 자원동원이론의 두 번째 한계인 지리학적 공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사회운동의 동인이 되는 갈등은 장소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되는데 이는 갈등의 구축과 그 해결 방식이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매우 지역화 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갈등의 구조와 이를 대중적으로 조직하는 방법, 특정 운동 방법의 선호 및 유행 등은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특수한 지역적 맥락 속에서 배태된다.

3. 프레임이론(The Frame Theory)

1) 프레임의 의미

자원동원이론의 심리적 요인의 간과는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초한 프레임 접근(Framing approach)을 대안으로 가져오게 되었다.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틀을 의미하며, Snow와 그 동료들에 의해 사회운동 연구에 도입되었다. 이들에 의하면, 프레임이란 무엇이 문제가 되는 사회현상인지, 누가 책임이 있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도입해야 하는지 등 운동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하고 운동의 의미 및 정당성을 부여하는 집단적 행동을 의미한다(Snow, et al., 1986). 즉, 프레임이란 갈등을 대중적으로 조직하는 사회 심리적 과정이자 운동 전략이며, 다양한 해석과 의미부여를 통해 갈등을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다.

프레임 접근은 자원동원 이론가들이 주창한 유리한 조건 자체로는 사회운동이 일어나지 않음을 전제한다. 집단행동은 행동 주체들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인지'하며 자신들의 집단행동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확신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의 유무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강도가 중요하며 그 내용을 조직하는 것은 바로 행동주체들이다. 즉, 사회운동은 조건이 유리하

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행동주체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구성물인 것이다.

2) 프레임의 종류와 역할

프레임 연구자들은 집단행동 프레임의 종류를 분류하여 사회운동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Gamson(1992)은 프레임을 부정의(injustice), 주체(agency), 정체성(identity) 프레임으로 구분하였다. 부정의 프레임이란 무엇이 문제(부정의)인가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정의를 뜻하며 주체 프레임이란 집단행동을 통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는 논리로서 개인이 사회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직접적 동기부여가 된다(Gamson, 1995). 정체성 프레임은 “우리”와 우리가 대항하는 “그들”에 대한 규정이다. 적군과 아군의 범위를 규정짓는 정체성 프레임은 매우 전략적인 요소로서, 최대한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군의 범위를 설정하며 최대한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적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집단행동 프레임의 주요 구성요소를 구분하는 것은 분석을 위해 대단히 유용하다. 그러나 각 프레임의 종류들은 현상을 해석하는 틀일 뿐 현상이 형성되는 과정, 즉 프레임의 구체적인 내용을 체계화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프레임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고찰하는 것이다. Billig(1995)과 Jenson(1995)은 사회운동 조직이 수사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민족주의에 대한 대안적 담론을 생산해내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운동이 사회적 담론구축 기능을 담당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은 사회담론의 생산이 새로운 정치기회구조를 만들어냄에 주목하면서 정치기회가 모든 집단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음은 물론, 정치기회구조 자체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Billig, 1995; Jenson, 1995). Gamson(1995)과 Gitlin(1980)은 미디어와 사회운동의 공생 관계를 고찰하면서, 단편적이고 화제 중심으로 형성되는 미디어 담론은 사회적 부정의의 근본적인 요인을 파악하는데 불리하며 따라서 사회운동집단에 대하여 왜곡되고 단편적인 이미지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²⁾

3) 프레임 이론의 의의와 한계

사회운동에 대한 프레임 접근은 사회운동의 사회적 구성을 강조하여 사회운동의 역동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운동의 인지적, 심리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운동 조직에 관여하는 중간적 스케일의 과정(예: 사회운동조직의 프레임 구축)과 거시적 스케일에서의 과정(예: 사회담론 구축과 정치기회구조 변화)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³⁾

사회운동에 대한 프레임 접근은 자원동원이론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프레임 연구들은 자원동원이론의 전통 위에서 진행되었다. Buechler(2000)는 프레임 접근이 자원동원이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동원이론이 간과하고 있는 해석적 차원을 보완해 주면서 자원동원이론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즉, 프레임은 자원동원이론이 주창하는 자원, 정치기회, 운동조직등과 더불어 사회운동의 주요 구성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논쟁정치 연구에서 프레임을 역동적 모델의 한 요소로 설정한 예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많은 국내외의 경험연구에서 자원동원이론의 주요 개념과 프레임을 혼합하여 분석의 틀로 이용하고 있는 것도 프레임과 자원동원이론의 상호보완성을 나타내주는 예가 될 수 있다(예: 김유미, 2005).

그러나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프레임 접근의 이론적 토대와 달리 대부분의 경험 연구들은 논리실증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는 자원동원이론과의 결합(엄밀히 말하면 흡수)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인식론과 방법론의 괴리는 프레임 연구의 한계를 노정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첫 번째 한계는 많은 프레임 연구에서 프레임이 사회적 구성임을 단언할 뿐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과정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프레임을 통해 어떻게 개인의 인지적 과정이 사회적 담론 형성으로 확장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생략된 채, 대부분의 경험 연구는 프레임 그 자체를 이미 주어진 조건으로 가정하고 어느 프레임이 더 효율적인지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무수한 프레임 이름이 양산되었으며, 그 명칭들은 뚜렷

한 준거 없이 작위적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기술적 경향은 프레임 생성의 맥락에 대한 해석학적 분석이 생략된 결과이다. 프레임을 사회운동 공식에서 하나의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자원동원이론의 논리실증주의적 틀은 사회운동의 일반적인 법칙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틀이지만, 각 변수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원동원이론의 틀 속에 갇힌 프레임 연구가 가진 한계이기도 하다.

두 번째 한계는 프레임 형성에 관한 대부분의 경험 연구에서 프레임이 집단행동 참여자들의 인지적 과정을 분석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운동의 전략으로서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프레임은 구성원들의 인지적 과정의 반영인 동시에 전략적 선택이다. 즉 사회운동의 인지적 전략인 셈이다. 전략적 차원에 치우친 연구 경향은 분석의 초점이 운동조직 스케일에 머무르게 함으로서 사회운동의 개인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즉, 프레임 이론가들이 주창한 ‘프레임 정렬’이나 ‘다차원적 프레임 구성’(註 3 참조) 등은 대부분의 경험 연구에서 구체화 되지 않았으며, 프레임은 하나의 운동 전략이라는 변수로서만 취급되면서 이론적 틀로서의 잠재성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한계는 결국 프레임 연구와 프레임 접근을 도입한 자원동원이론 그 어느 쪽도 사회운동의 동인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세 번째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개인의 인지적 구성 과정에 대한 간과와 성공적인 프레임 전략 규명에 치우친 연구 경향은 여전히 “왜 사회운동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원동원이론이 “사회운동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사회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으로 치환해 버렸다는 Melucci(1994)의 비판은 프레임 연구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4. 신사회운동이론 (New Social Movement Theories)

자원동원이론과 프레임이론이 북미를 중심으로 포

괄적인 사회운동연구의 틀로서 발달되었다면, 신사회운동이론은 유럽을 중심으로 전통적 마르크시즘에 대한 대안적 비판으로 등장하였다. 신사회운동이론은 “새로운” 사회운동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며, “새로운” 경향과 대비되는 “구” 사회운동은 마르크시즘이 사회변혁의 주요 기제로 제시한 노동운동이다. 신사회운동이론은 후기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사회구조로의 전환의 상징이 바로 신사회운동의 등장이라고 보며, 계급투쟁을 둘러싼 노동운동 대신 다양한 저항의 지점이 형성되었음을 강조한다.

1) 신사회운동이론의 내적 다양성

신사회운동이론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탈(脫)마르크시즘적 입장이고 두 번째는 신(新)마르크시즘적 입장이다.⁴⁾ 탈마르크시즘 옹호자들은 마르크시즘의 환원주의는 그 효용성이 다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운동 논리로서 신사회운동을 제시하였다. 신사회운동이론의 대표적인 개척자 중 한 명인 Touraine은 현 사회가 후기산업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기산업사회에서의 주요 갈등의 축은 지식의 창조와 분배를 둘러싼 장에서 형성된다고 하였다(Touraine, 1985).⁵⁾ 그에 의하면 신사회운동이란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이루는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후기산업사회에서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새로운 투쟁 형태이다.

Habermas(1984)도 그의 저작인 *Theories of Communicative Action*을 통해 신사회운동이론의 기초를 제시하였다. Habermas(1984)에 의하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견인하는 두 가지 상반된 동력은 시스템(system)과 생활세계(lifeworld)인데,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와 긴장의 원인을 자본과 이성의 논리가 주도하는 시스템이 개인들의 수평적 상호의사소통으로 구축된 생활세계를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게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서 찾았다. 즉 “시스템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새로운 형태의 갈등과 저항을 불러왔는데, 이는 이전 시대의 생산과 분배를 둘러싼 투쟁과 달리 삶의 질과 형태에 관한 투쟁—인권, 자아실현, 평등, 참여 등—을 특징으로 한다는 차별성이 있다(Habermas,

1981).

Touraine의 수제자인 Melucci는 Touraine의 결정론적 이론과 Habermas의 거대 담론을 넘어서서 신사회운동의 유연성과 개인차원의 저항을 고찰했다. 그에 의하면 포스트모던 사회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지배-정보처리, 문화적 코드의 생산, 상징과 기호의 조작 등-를 가져오며, 이러한 새로운 지배질서는 개인의 정체성 위기를 야기하며 이 위기를 타개하는 수단으로 집합적인 정체성 구축 시도가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Melucci, 1980, 1988, 1994). 신사회운동은 바로 집단정체성 형성의 과정이자 수단이다. 신사회운동의 기초인 집단적이고 대안적인 정체성은 시민사회의 저변에 깔린 비공식적 네트워크인 “침수된 네트워크(submerged networks)”를 통해서 갈등과 불만, 공동의 관심사와 담론의 구축과 확산을 통해 형성된다(Melucci, 1994). 따라서 Melucci에 의하면, 집합적 정체성은 주어지거나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신사회운동의 조건이자 성취물이며, 원인이자 전략인 셈이다.

이상의 탈마르크시즘적 신사회운동이론은 전사회적 통합체-가령 후기산업사회나 포스트모던 사회-를 문화적 또는 기호학적 입장에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항하는 분산된 형태의 저항으로서 신사회운동을 설명하였다. 반면 신마르크시즘적 신사회운동 이론가들은 정치경제학적 설명을 통해 신사회운동을 해석하고자 했다. 조절이론을 도입한 Hirsch와 Roth는 신사회운동이 포디즘적 생산양식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에 의하면, 포디즘적 생산양식이 시민사회의 저항을 야기하는 이유로 사회적 관계의 상업화, 개인주의와 취향의 동질화라는 모순된 과정을 동시에 양산하는 대중소비, 관료주의와 관료적 통제의 확장, 전통적 사회관계의 붕괴 등을 꼽았다(Steinmentz, 2002).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창출하는 포디즘적 조절양식에 저항하는 신사회운동은 분산된 조직, 지방화 된 전략과 목표, 사회적 차이성에 대한 전략적 강조, 반정부/반관료적 특징을 지닌다(Steinmentz, 2002). Hirsch(1988)는 신사회운동이 포디즘적 조절양식의 위기를 고조시키며 포스트포디즘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기제가 되지만, 차이를 강조하는 신사회운동의

분절성은 포스트포디즘적 지배양식을 오히려 강화시키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즉, 신사회운동의 내적 다양성과 차이성의 정치는 탈마르크시즘 연구가들에 의해 “새로운” 징후로서 칭송되었지만, 신마르크시즘 연구가들에 의해서는 운동역량의 분산을 야기하여 진보적 잠재력을 축소시킨다고 비판 받았다.

2) 신사회운동론에 대한 비판

신사회운동이론은 최근 사회운동의 경향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동한 구조적 원인을 설명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거시적 스케일과 미시적 스케일을 통합하여 사회운동의 원인을 분석한 Melucci등의 연구는 자원동원이론이나 프레임이론이 간과한 지점을 보완하고 있다. 신사회운동이론의 발생과정과 그 특징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신사회운동이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신사회운동이론은 운동 전개와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초기의 연구들은 사회변동의 이론화에 치중하여 운동방법과 결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바로 자원동원이론과 신사회운동이론의 결합이 가능한 지점이기도 하다. 둘째, 일부 신사회운동 연구는 마르크시즘의 환원주의나 구조결정론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제기되지 않았다. 가령 신마르크시즘적 접근은 자본주의 발달이 사회변동과 신사회운동을 이끌어낸다는 경제적 환원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Touraine 역시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계급투쟁이라는 경제기술결정론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행동주체의 다양성과 역동성, 집단행동의 문화적, 사회 심리적 측면을 전면에서 내세운 신사회운동이 결국 경제결정론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집단행동의 내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신사회운동이 한 가지 동력(자본주의 체제 변화나 후기산업사회 도래 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가 될 수 있다. 셋째, 자원동원이론처럼 신사회운동이론 역시 서구적 민주주의 모델을 기초로 하여 발달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역사적 궤적과 정치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비서구 국가들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신사회운동이 민주화 운동과 동시에 일어나는 반주변부 국가들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신사회운동은 서구의 진보정당의 역할을 대체하기도 하며, 민주화를 이끄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신사회운동의 성격과 역할은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연구되어야 하며, 탈 서구중심적인 사례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⁶⁾

5. 사회운동의 동인으로서 공간, 장소, 스케일

1) 공간의 생산과 갈등의 배태

사회과학 연구에서 공간은 종종 측량될 수 있는 기하학적 공간으로 인식되거나 사회 현상이 발생하는 배경 또는 빈 용기로 인식된다. 사회운동 연구에서도 공간은 사회운동의 지리적 범위나 발생 지점으로만 인식되어 왔고, 따라서 공간 그 자체가 사회운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공간은 사회현상으로 채워지는 빈 그릇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현상을 규제하고 또한 사회 현상에 의해 창출되는 사회적 구성물임이 지리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다. 일찍이 Lefebvre(1979)는 “사회관계속에 스며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이후 “사회-공간의 변증법(socio-spatial dialectic)”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사회-공간의 변증법은 자본주의 공간 생산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자본주의는 자본의 순환 과정에서 항상 특정한 공간(가령 건조환경)을 창출하면서 발전한다는 것이 정치경제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Harvey, 1982; 1985, Lefebvre, 1974; 1979 등 참조). 자본주의 생산관계 속에서 생산된 공간은 자본축적을 가속화 시킬 뿐 아니라, Harvey(1982)에 의하면 이미 생성된 공간의 비유동성은 결국 자본축적의 방해물로 작동함으로써 자본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즉, 공간은 자본에 의해, 사회적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것

이며 그 자체로서 사회적 활동을 촉진 또는 규제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공간의 생산이 어떻게 사회운동을 야기하는가에 대해서 Lefebvre는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Lefebvre(1979)는 공간을 추상적 공간(abstract space)과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의 두 종류로 구분하고 전자는 정치·경제 영역을 통해, 후자는 개인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사회관계를 통해 생산된다고 보았다. 추상적 공간은 자본주의 확장으로 인하여 더욱 공세적으로 사회적 공간을 침범하는데, 이는 공간의 상업화와 관료화를 통해 가속화 된다(Gregory, 1994). 추상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의 대조적인 생성과정과 둘 간의 긴장은 자본주의 사회의 갈등과 모순의 근본적이 토대가 되며, 추상적 공간의 확장으로 인한 사회적 공간의 침해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개인과 집단의 투쟁을 야기하는 것이다. Lefebvre의 연구는 Habermas의 시스템과 생활세계 개념과 놀랍도록 유사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Habermas 보다 훨씬 이전에 제시되었으며 보다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Miller, 2000). 즉, 하버마스의 “시스템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된 반면, Lefebvre는 공간의 상업화와 관료화라는 자본주의 공간생산의 메커니즘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저항이 형성되는 구체적인 지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Miller, 2000).

Lefebvre의 연구는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토지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한 한국의 사례를 이해하는데 특히 도움이 된다. 도심재개발과 철거민 운동, 그린벨트를 둘러싼 환경권과 개발권의 갈등, 개발에 따른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운동, 환경파괴에 따른 이익과 비용의 불균등한 사회적 전가를 시정하기 위한 환경정의운동, 기타 부동산 정책과 주거공간의 안정을 위한 시민운동 등에서 보여지듯 압축적인 자본주의 경제성장은 자본의 축적을 위한 추상적 공간을 끊임없이 생산하며, 이는 사적이고 주관적 의미를 가진 사회적 공간(지역사회, 환경, 가정 등)을 잠식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환경과 토지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저항은 이러한 사회적 공간을 상업화나 관

료화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집단행동이며, 사회적 공간에 부여한 사용가치가 교환가치로 대체되는 것에 대한 항거이다.

2) 장소: 장소감과 집단정체성

추상적인 공간과 달리 장소는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물리적 영역이며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다른 장소들과 중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장소는 장소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연대감을 심어주며, 공동의 기억과 정체성을 형성하게 한다. 특정 장소에 대한 감정의 공유와 그 장소를 통해 형성된 인지세계의 유사함은 사회운동가 집단이 공동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곧 공동의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기초가 된다(Hasson, 1997).

신사회운동의 선결조건인 집단정체성의 구축 역시 특정한 장소를 통해 형성되기도 한다. 가령, 종교적 공공장소(Nagar and Leitner, 1998), 가정(Hooks, 1990), 지역사회(Martin, 1999) 등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녹아있는 삶의 현장이면서 특수한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산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장소는 단순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물리적 토대일 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실존적 토대이기도 하다. 장소는 또한 Melucci가 신사회운동의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제시한 침수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기제가 된다. 즉, 장소(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를 통하여 형성된 비공식적이고 끈끈한 사회관계의 그물망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개별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을 초월하여 왜 집단행동이 조직되는지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를 제공해준다. 한국의 민주화항쟁과 그 이후 다원화된 사회운동이 1980년대 대학 캠퍼스를 바탕으로 형성된 학생운동조직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장소는 또한 장소에 대한 공동의 경험과 감정을 창출해 냄으로서 집단적인 장소감을 발현시킨다. 장소를 통한 연대 의식과 집단 정체성 역시 이러한 장소감의 공유를 바탕으로 한다. 특정 장소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의 차이는 집단 간의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Jung(2004)은 그린벨트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란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상이한 의미부여와 이해관계를 제시했다. 즉, 그린벨트는 소유주에게는 부동산이며, 주민에게는 지역사회인 동시에 삶의 터전이며, 정부와 관료들에게는 좌표와 구획으로 구분되는 관리대상이며, 환경운동가들에게는 공공의 자산인 것이다. 그린벨트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무엇이 부정의(injustice)인지, 누가 가해자이며 피해자인지에 대한 상이한 인식을 가져오며, 그린벨트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장소에 대한 의미부여를 위한 각축이 되는 것이다(Jung, 2004). Martin(1999)도 미국 미니애폴리스의 Frogtown이라는 빈민촌 지역운동을 사례로 한 연구에서 주민단체들 간의 갈등은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과 의미부여, 즉 장소감의 차이에 기인하며, 주민운동은 결국 지역사회의 이미지 구축을 둘러싼 논쟁이라고 주장하였다. Martin(1999)은 장소에 대한 가치 및 의미부여를 장소프레임(place frame)이라고 명명하고 장소프레임이 어떻게 운동의 전략과 성패를 좌우하는지를 사례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장소프레임과 같이 공간적 맥락을 고려한 개념들은 프레임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을 체계화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운동이나 특정 장소를 둘러싼 집단행동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3) 스케일 : 스케일 미스매치(scale mismatch)와 갈등의 구조적 생산

공간과 장소가 지리학의 오랜 연구 대상이 되어온 반면, 스케일은 세계화와 지방화 논쟁이 촉발된 이후 새롭게 주목받는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의 스케일 연구는 구성주의적 접근에 입각하여 스케일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유동적 생산물임을 강조 한다(Delaney and Leitner, 1997; Marston, 2000). 조절론적 입장에서 세계 자본주의 발달과 스케일 체제와의 연관성을 연구한 Brenner(1997, 1998)와 Swyngedouw(1997)등에 의하면 포디즘적 자본주의 발달은 중앙과 지방의 이원화와 민족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스케일 체제를 만들어 냈지만 세계화 시대 중앙과 지방의 분리라는 경직성은 포디즘의

위기를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경을 초월하여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자본과 초국적 기업의 활동은 개별 민족국가의 통제력을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국가 스케일의 쇠퇴와 지방화와 세계화를 동시에 가동시키는 세방화(glocalization)를 불러왔다. 이러한 국제 정치지형의 변화는 민족국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하위체제를 유지하던 경직된 포디즘적 조절양식의 붕괴를 의미하며 포스트 포디즘적 조절양식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즉, 포디즘의 위기는 자본축적의 스케일과 조절양식의 스케일이 불협화음을 이루는 스케일 미스매치에 기인한다(Swyngedouw, 1997). 스케일 미스매치는 국가 스케일의 영향력 축소와 동시에 초국적 스케일의 생산과 지방 스케일의 중요성 확대 등 전 지구적인 스케일 재구조화를 불러왔다 (Brenner, 1997, 1998; Swyngedouw, 1997)

자본주의 위기가 스케일 체제의 모순에 기인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조절양식은 스케일 재구조화를 동반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사회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구조적인 배경을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스케일 체제의 모순은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양산하며, 새로운 스케일 체제는 갈등과 저항의 지점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일례로, Jung(2005)은 한국의 그린벨트 논쟁을 둘러싼 갈등의 조성이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과 권한의 불일치, 즉 그린벨트 정책의 스케일 미스매치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고 하였다. 중앙집권적인 정권에 의해 설치된 그린벨트의 권역조정을 비롯한 주요 권한은 건교부와 대통령에 일임된 반면, 감시감독과 민원처리, 예산확보 등 그린벨트 관리에 요구되는 대부분의 의무는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포디즘적 국토관리체계가 세계화 및 지방 자치의 진전에 따라 위기를 맞게 되며 중앙에 대한 지방의 저항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Jung, 2005).

스케일 미스매치와 갈등의 구조적인 생산에 대한 담론은 신사회운동이론에 대한 보완적 담론으로서 특히 의의가 있다. 신사회운동이론은 자본주의 체제의 전환에 따른 사회적 모순과 저항의 지점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사회운동의 발발을 조망하고 있다. 스케일 미스매치와 스케일체제의 재구조화는 신사회운동을 유발하는 새로운 갈등의 구축을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제

시함으로써 추상적인 신사회운동이론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6. 사회운동의 전략으로서 공간과 장소, 스케일

1) 스케일 정치 (Politics of Scale)

스케일 정치란 개인과 집단이 상이한 스케일에서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스케일을 넘나들거나 새로운 작동 스케일을 창출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사회운동에서 스케일 정치란 정부나 자본 또는 지배세력에 의해 부여된 질서에 대항하여 사회운동 단체가 대안적인 운동 스케일을 창출하거나 유리한 운동 환경 조성(가령 연대와 자원 동원 등)을 위하여 스케일을 생성, 변형,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사회운동 단체들에 의한 스케일 정치는 주로 지방의 단체들이 상위 스케일의 단체와 연대를 통하여 이슈를 확대하고 보다 큰 영향력을 획득하는 스케일 상승 정치(scaling up politics)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령, Keck and Sinkkink(1998)은 최근 사회운동의 세계화 경향을 초국적 네트워크 구축과 부메랑효과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현대 시민사회는 “초국적 지지 연대(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 또는 TAN)”라는 운동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창출하였고, 이들은 지방 단체와 연대하여 해당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밖(세계)에서부터 안(지방)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Keck and Sinkkink, 1998). 이들은 외부로부터 중앙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국가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과정을 스케일 정치라는 용어 대신 부메랑 효과라고 지칭하였다(Keck and Sinkkink, 1998). 비슷한 맥락에서 Kelly(1997)는 필리핀 아마야(Amaya) 지방에 초국적 투자 컨소시엄이 전력생산기지를 건설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아마야 환경단체들이 국제적인 NGO와 연대하여 지방의 이슈를 세계적 환경문제로 부각시키는데 성공하면서 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킨 사례를 통해 스케일 정치가 사회운동의 효율적인 전략

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연대의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지방 단체들이 상위 스케일의 NGO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사회운동의 스케일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상위 스케일에 어필할 수 있는 운동의 정체성을 창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정체성의 정치나 프레임 구축 등을 통하여 설명된다. 운동의 스케일 상승은 적군과 아군의 경계, 운동 목표, 제기되는 이슈, 동원 방법 등에 변화를 동반한다. 스케일 상승에 따른 정체성 변환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매우 미진한 상태이지만 몇몇 연구들이 접합지점을 제시하였다. Slater(1997)는 멕시코의 사파티스타스(Zapatistas) 항쟁을 사례로 하여, 멕시코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치아파스(Chiapas)주의 마야계 원주민들로 구성된 반정부 농민항쟁이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전환된 과정을 고찰하면서 스케일 상승에 따른 운동의 구호 변화에 주목하였다. 게릴라 농민 항쟁은 가난한 원주민 지역사회에 대한 정부의 착취를 중단하고 지역사회에 의한 공동 토지소유라는 전통적인 토지관계 회복을 위한 운동으로 시작되었으나 이를 지역자치 이슈로 새롭게 부각시키면서 멕시코 정부에 대항하는 지역연대를 형성하였고, 때마침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반대하는 반세계화 운동으로 저항의 스케일을 상승시켰다.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상징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토지의 자본주의 체제 편입을 가속화하여 전통적인 토지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제3세계의 농촌지역을 더욱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멕시코 내에서도 가장 소외받는 원주민 집단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인종문제와 원주민 인권, 신식민주의 등 다양한 담론을 재구성하여 운동 프레임으로 승화시킨 사파티스타스는 세계의 NGO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반세계화운동에 접목되는 스케일 상승의 효과를 얻어냈다(Slater, 1997).

지방과 세계의 동시적 접촉은 교통통신 기술의 진보로 더욱 실현가능해졌다. 가령 사파티스타스는 이메일로 상호 소통하며 농촌과 도시, 전 세계를 넘나드는 비밀 점조직을 구축하였다. Adams(1996)는 무선통신기술의 발달이 지역운동을 지구적 시민사회 운동으로 승

화시킬 수 있는 추동력이라고 보고, 1989년의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졌던 베이징 학생운동, 마르코스 독재정권을 몰아낸 필리핀 민주화운동, 미국의 시민권 운동을 선구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이들 운동은 지역의 특수한 갈등 관계 속에서 잉태되었지만 그 지역에 국한된 이슈보다는 인권과 민주화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 운동의 정체성을 규정하면서 세계 시민들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특히 전화, 팩스, 대중매체 등 새로운 정보통신 수단의 등장으로 국제단체들의 지원과 우호적인 국제 여론 형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냈다(Adams, 1996).

2) 사회운동의 전략으로서 공간과 장소

장소는 사회운동이 일어나는 현장 또는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장소가 가진 특수성은 사회운동을 매개하는 변수가 되기도 한다. 공간의 물리적 구조나 장소의 상징성을 활용하는 사회운동의 공간적 전략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 학자들이 개념적 틀을 모색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Routledge(1996, 1997), Sewell(2001), Zhao(1998) 등이 있다. Sewell(2001)은 공간이 사회운동 전개에 관여하는 방법을 구조, 위치, 동시적 존재성(co-presence), 거리, 건조환경,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공간이동(spatial routine), 공간의 의미, 스케일 등 8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Zhao(1998)는 1989년 천안문 광장 시위를 촉발시킨 베이징 대학생들의 시위 연구를 통해 국지적 공간구조가 어떻게 시위패턴과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사회운동의 공간 전략은 공간의 물리적 특성(구조, 위치, 건조물 등)을 활용하여 운동을 전개하는 방법과 공간의 상징성(또는 장소감)을 차용하거나 생산해 내는 방법, 그리고 사회운동의 산실인 안전공간(safe spaces)을 만드는 방법으로 나뉘어 진다.

사회운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간의 물리적 특징은 특정 공간의 구조, 위치(타 공간과의 연결성), 공간이 포함하고 있는 구조물 등이 있다. 1990년대 네팔 혁명을 이끈 Movement for the Restoration of Democracy(MRD)는 본부를 수도인 카트만두에 두었

으나 또 다른 근거지인 파탄市(Patan)를 전략적 기지로 활용하여 실제적인 시위를 펼쳤다. 파탄시의 좁고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길은 경찰들에게는 미로였지만 지역지리에 능통한 활동가들에게는 전략적 요지였다. 지역사회의 도시구조를 활용한 게릴라 전술은 경찰의 진압을 효과적으로 따돌렸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페타이어는 좁은 길을 막는 바리케이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다(Routledge, 1997).

1989년 4월의 베이징 학생운동은 베이징 시내 대부분의 대학을 한 곳으로 모아놓은 도시구조 덕을 톡톡히 본 경우이다.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 대부분의 베이징 시내 대학들은 하이톈구(海澱區)에 좁은 거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이웃하고 있다. 이러한 근접성은 학생운동 조직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거리 시위 당시 군중의 움직임과 구호 등의 시각적·청각적 효과를 제한된 공간 내에서 극대화시켜서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순식간에 이루어 내었다(Zhao, 1998). 베이징 학생운동 당시 각 대학의 운동조직들은 곧바로 천안문 광장으로 나가는 대신 캠퍼스와 기숙사를 돌며 더 많은 학생들을 모으고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전략을 취했다. 이는 Routledge(1996)가 제시한 ‘군중의 응집’(Pack-비교적 소규모의 군중들이 무리를 지어 공간을 움직이면서 시위를 가시화하는 한편 더 많은 지원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전략)에 해당되는 전략이다.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캠퍼스에서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각 대학의 학생운동 지휘조직은 제각기 천안문 광장으로 전진하지 않고 우회하여 경찰이 저지선을 형성한 사거리에 집결하였다(Zhao, 1998). 이곳은 천안문 광장으로 가는 길목이며 경찰의 저지선을 뚫음으로서 반정부 시위의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 또한 시위 경험이 거의 없던 각 대학 군중들이 개별적으로 저지선을 뚫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각 방향에서 협공으로 동시에 저지선을 뚫음으로서 개별 참가자들의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Zhao, 1998). 베이징 학생들의 사거리 점령이나 그 이후 이어진 천안문 광장 시위는 특정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는 운동 전략의 한 유형을 보여준다. 특정 공간의 점령, 또는 ‘군중에 의한 장악’(swarm) (Routledge, 1996)은 다양한

참가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대를 제공하며, 잠재적 참가자들의 동원을 독려하며, 적들에게 시각적·정신적 위협을 안기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교통의 집결지, 광장 등의 공공장소, 시위의 대상이나 성격을 부각시키는 특정 장소들이 점령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장소들은 우연히 설정되기도 하지만 운동 조직에 의하여 치밀하게 계획되는 것이 보통이다. 성공적인 공간장악은 사회운동의 이름으로 불려 지기도 하며(가령 광화문 촛불시위), 운동의 정점을 제공함으로써(가령 프랑스 혁명 당시 바스티유 감옥 함락)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된다.

공간의 구조 및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특정 장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사회운동의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재창조되기도 한다. 프랑스 혁명 당시 바스티유 감옥 습격은 장소의 상징을 활용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은 감옥으로 상징되는 왕정에 대한 상징적 저항이었다. 당시 감옥에 죄수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죄수해방이 혁명군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준다. 프랑스 혁명 이후로 상징적 장소 공략은 사회운동 조직들이 즐겨 쓰는 전략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프랑스 농민들의 반미항쟁이 파리의 맥도날드 매장 습격으로 대체된다거나 WTO 정상회담이 열리는 곳마다 반세계화 운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 등은 그 장소 자체가 저항의 대상이 아니라 장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저항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장소의 상징성이 사회운동의 전략으로서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사회운동에 의해 상징성이 바뀌거나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1990년 내팔 혁명의 공간성을 연구한 Routledge(1997)는 혁명이 특정 장소의 사회적 의미를 바꾸어 놓았음을 기술하고 있다. 혁명을 치르는 동안 카트만두와 파탄의 마을광장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던 공간에서 혁명지도자들의 비밀 모임장소로 변화하였다. 즉 일상적 공간이 사회운동을 통하여 역사적 공간으로 재정의 되면서 기념되는 것이다. 권위적 통치를 상징하던 천안문 광장도 1989년 시위 이후 중국 민주화의 성지로 거듭났다. 베이징 대학생들은 천안문 광장에서 자유의 여신상 미니 어처를 흔들며 프랑스 혁명이었던 ‘La Marseillaise’를

부르며 시위하였는데(Kearns, 1993), 이는 독재의 전 시 행정물이던 천안문 광장을 서구 민주주의가 이식된 산실로 그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바꾸는 작업이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운동은 안전공간을 창출해 나가며 전개된다. 안전공간이란 사회운동을 조직하고 지지자들을 모집하는 일련의 활동이 감시와 통제를 피하여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사회운동 주체들에 의해 창출되는 공간을 의미한다(Sewell, 2001). Routledge(1997)는 이러한 공간을 사회운동의 보급자리라고 지칭하면서 운동주체의 연대를 조성하는 산실이라고 규정하였다. 운동주체들의 연대와 정체성을 구축하는 작업은 이른바 침수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즉, 안전공간은 운동가들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현장인 동시에 기제가 되는 것이다.

안전공간은 비민주적인 정치 환경에서 그 중요성이 특히 부각된다. 네팔혁명 당시 카트만두 계곡은 혁명가들의 훈련과 모임을 가능하게 해 준 은신처를 제공하였다(Routledge, 1997). 제3세계의 민주화운동은 경찰로부터 비교적 독립된 대학캠퍼스에서 태동한 경우가 많다. 담으로 둘러쳐진 베이징 시내의 대학들은 비판적인 담론들이 자유롭게 형성될 수 있었던 해방구였다.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자급자족이 거의 가능할 정도로 외부와 독립된 생활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캠퍼스 구조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의 이동 및 상호작용 패턴을 통제함으로써 학생운동 동원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가령, 베이징대학의 삼각지(The Triangle), 인민대학의 제3학생식당, 칭화대학의 제10식당 등은 학생들의 삶의 중심이 되며 많은 학생들의 유동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으로서 학생운동 동원과 담론의 유포가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나며 활동가들과 학생들과의 만남이 비교적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곳이었다(Zhao, 1998). 이들 장소 외에 학생들의 동원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요람은 다름 아닌 대학기숙사였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베이징대학의 경우 기숙사는 잠재적 운동가들의 합숙장소에서 기능하였다. 이 거대한 물리적, 사회적 공동체는 혁명적인 사상에 대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였음은 물론 일종의 상호감시체제를 형성함으로써 무임승차자를 줄이고 많은 학생들을 시위에 가담하게 하는 실질적인

원동력이 되었다(Zhao, 1998). 대만의 원주민 인권 운동 역시 국립대만대학교를 위시한 대학가 앞에 조성된 사회과학 서점들의 지하방에서 조직되었다. 대학가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금지된 지식이 은밀하게 생산되고 유통되는 현장이었으며 활동가들의 만남을 비밀리에 성사시킨 은신처 역할을 하였다(Jou, 2006, interview). 1970-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강의실과 캠퍼스 내 공공장소, 동아리방, 대학가 주점과 서점 등은 학생들의 일상적 생활이 영위되는 장소인 동시에 공권력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운동의 안전공간이었다. 이들 장소에서의 세미나와 정치토론, 금서읽기 등은 학생들간의 연대와 비판적인 담론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시위 당시 경찰로부터 즉석 은신처가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정치적 탄압이 강한 비민주적 정치구조 속에서 창의적인 안전공간의 창출은 사회운동의 성패와 지속 여부를 결정할 만큼 필수적인 과정이다.

7. 결론

본 논문은 현대 사회운동이론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원동원이론, 프레임이론, 신사회운동이론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비교·고찰하면서 이들이 공통으로 간과하고 있는 지리학적 공백을 채워나가기 위해 몇몇 선형적인 연구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사회운동 연구로의 접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서구 사회운동 연구의 주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자원동원이론은 사회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분석틀을 제공해 주지만, 이성적 개인에 대한 가정이나 정치적 측면에 치우친 분석은 실제로 사회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적인 동인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와 사회운동의 문화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등장한 프레임이론은 사회운동의 인지적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운동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에 주목한다. 자원동원이론이 사회운동의 조건에 관한 이론적 틀이라면, 프레임이론은 운동주체의 능동적인 역할에 관한 분석틀이다. 그러나 필자는 실제 경험연구에서 프레임접근

이 맥락에 대한 해석보다는 실증적인 분석에 치중함으로써 프레임의 전략적 활용을 부각시킨 반면, 프레임의 사회적 구성 과정에 대한 분석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반면, 신사회운동이론은 후기산업사회 이후 등장한 다양한 시민사회운동의 동인과 특징을 설명해준다. 신사회운동이론은 사회운동의 발발을 정치경제 구조의 변화 속에서 고찰함으로써 거시적 분석을 제공하며, 사회운동을 하나의 분리된 사회 현상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과정과 접합되는 중층적인 과정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사회운동의 맥락적 분석이 중요시되며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회운동 연구의 세 가지 접근법은 배타적이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앞서 기술했듯이 자원동원이론과 프레임이론은 이미 어느 정도 융합이 시도되고 있다. 이 두 이론은 신사회운동이론과도 보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가령, 자원이나 정치기회구조와 같은 개념들은 신사회운동을 설명할 때도 여전히 유용한 분석도구가 된다. 특히 이들은 운동의 동인과 특징에 치중한 나머지 운동의 전략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 결여된 신사회운동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는 개념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자원동원이론과 프레임이론, 신사회운동이론의 보완적 결합은 생산적인 연구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계적 합집합 그 자체로 완벽한 분석틀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사회운동의 공간성이야말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회운동 연구가 공간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하며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운동은 장소마다 상이한 갈등구조와 동원 전략을 가지고 전개된다. 그동안 사회운동이론들은 차이를 넘어서는 일반화의 틀을 추구해왔다. 자원동원이론은 물론 주체의 인지적 과정을 중시한 프레임이론이나 다양화를 기치로 한 신사회운동이론조차도 지역적 차별성을 설명하려는 시도보다는 궁극적으로 일반화의 틀을 지향하고 있다. 가령, 프레임의 형성과정 자체는 간과한 채 프레임을 유형화하고 효과적인 프레임을 추출해 내고자 했던 대다수의 프레임 연구들은 일반화의 틀을 추구하는 전형을 보여준다. 신사회운동

연구 역시 다양성을 부각시켰을 뿐, 이러한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차별적이고 미시적 조건들에 주목하기 보다는 포스트모던사회로의 전환 등 거시적인 구조적 특징을 밝혀내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다. 다양성을 주창하는 신사회운동 연구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서구사회 등 일부 지역만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신사회운동이론이 말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나 구조변화가 서구사회의 최근 변화를 설명하기에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다. 비 서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름 붙이기조차 어려운 다양한 집단행동들은 단순히 신사회운동의 틀 속에서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중층적이다. 일반화가 사회과학의 불가피한 지향점이나 아니냐는 본 연구의 쟁점이 전혀 아님을 밝혀두고 싶다.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차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없이는 진정한 일반화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차이를 단순히 정치기회구조의 열림이나 닫힘으로만 설명한다든지 후기산업사회 또는 포스트모던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추상적 용어로 설명하는 것은 차이에 대한 물이해를 불러올 수 있다. 공간과 장소는 사회운동의 공간적 차별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는 개념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갈등의 사회적 구성, 보편적 정서의 형성, 가치관과 정체성의 구성,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 등은 특정 장소에서 배태되기 때문이다. 공간과 장소는 단순히 사회운동이 발생하는 무대(사회운동과 괴리된 배경)가 아니라 사회운동의 발생과 형태 및 결과를 설명해 주는 단초가 된다.

둘째, 국가, 장소, 지역, 스케일 등 공간적 속성은 사회운동이 일어나고 해석되는 '맥락'에 대한 설명을 용이하게 해준다. 가령, 정치기회구조는 단순히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로 그 중요성이 다 설명되지 않는다. 사실 정치기회구조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운동의 기계론적 해석을 배제하고 사회적 맥락에 대한 설명을 도입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이다. 즉, 열림(유리)이나 닫힘(불리) 그 자체보다도 어떤 점에서 열려 있고 어떤 점에서 닫혀 있는지, 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등 정치기회구조의 맥락에 대한 분석이 사회운동 연구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맥락에 대한 설명은 사회운동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연결된다. 사회운동을 하나의 현상, 또는 이미 주어진

결과로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인 과정으로, 여타 사회현상과 복잡하게 맞물린 복합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회운동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단계이다. Martin(1999)의 사례연구가 제시 하듯이 공간적 맥락에 대한 체계적 설명은 프레임 연구의 공백인 프레임 구성과정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운동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이 대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기존의 프레임 연구는 프레임이라는 틀에 치우쳐서 그 틀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생략된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프레임의 이름만 무성한 채 그 프레임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런 프레임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공간적 맥락-특정 지역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 문화적 특징과 권력관계, 지역사회의 구조 등-에 대한 분석은 프레임의 내용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맥락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사회운동의 동인을 밝혀주기 때문이다. 자원동원이론이나 프레임 연구가 사회운동 동인에 대한 분석을 생략한 이유가 이 두 이론의 틀이 동인에 대한 분석을 용이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수많은 사회적 변수와 연관되어 있다. 특히 최근 사회운동은 한 스케일에 걸쳐져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과 전 지구적 과정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일어난다. 이러한 역동성은 몇몇 개념으로 일반화되기 힘들며, 따라서 특정 장소가 지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 대한 다스케일적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공간적 속성은 그 자체로 사회운동의 전개를 가능하게도, 제한하기도 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미시적 스케일에서 볼 때 건조공간의 구조, 지형지물, 특정 장소 및 시설물의 상징성 등은 시위와 집회의 위치, 규모, 방법, 효과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시위나 다양한 형태의 집단행동은 공간동학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1989년 역사적인 천안문 광장 시위를 촉발시킨 베이징 학생 운동이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학들을 한 곳에 모아 놓은 도시구조에 상당부분 기인한다는 것은 사회운

동의 공간동학, 또는 공간생태학(Zhao, 1998)의 직접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과 한국의 민주화 운동 역시 대학생들의 일상생활의 동선(spatial routine)을 따라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 앞, 기숙사, 강의실 등은 일상적이기 때문에 은밀할 수 있었고, 파급력이 컸다. 또한 대학과 주점 및 서점 등의 공간적 집적은 둘 간의 공생이라는 공간적 상호관계를 낳았으며 이 속에서 진보적 담론이 형성되었고, 활동가들의 은신처가 마련되었으며, 게릴라 시위 등이 등장하였다. 사회운동 과정과 공간과의 변증법적인 관계는 공간이 사회운동의 동인으로서, 매개체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제시해주는 데, 이는 기존 사회운동 연구의 결정적인 공백일뿐더러(Tarrow, 2001) 지리학자들의 관심과 기여가 더욱 많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註

- 1) 최근 정치적 집단행동은 전통적인 시위를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NGO와 정부기관과의 적대적 협력(conflictual cooperation)(Giugni and Passy, 1998), 전통적인 NGO가 아닌 원주민 조직에 의한 게릴라 전투, 이익 집단들에 의한 동원, 담론형성을 둘러싼 사회집단간의 논쟁,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에서의 투쟁 등 운동의 목표나 주체, 대상, 방법 등에 있어서의 일대 변화는 오늘날 세계정치를 보다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논쟁정치란 이러한 변화를 아우르기 위한 개념이다.
- 2) 사회운동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늘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미디어가 단편적이고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는 화제를 선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사회운동에 대한 편파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고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현대사회에서 다원화되고 있는 미디어의 역할을 일반화시키긴 어렵다. 특히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진보적 잠재성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인터넷은 상호 소통적이고 탈 중심적이며 탈권위적인 동시에 초국적 네트워크 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매체라는 특성상 권력기관보다 사회운동단체에 의해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현대 사회에서 대안적인 담론 형성의 주요 기제가 되고 있다(박춘서, 2005; 윤민재, 2005; Adams, 1996). 이 외에도 현대 사회운동이 사회적 상호의사소통의 기제로서 담론 및 의제 형성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역할의 수행 여부에 따라서 운동의 성패가 좌우됨이 선거나 정책결정 등 다양한 정치적 기회구조를 사례로 하여 연구되었다(김유미, 2004; 김혜진, 2001; 이병하, 2000)

- 3) 이러한 과정을 Snow와 그의 동료들은 프레임 정렬(frame alignment)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프레임 정렬이란 프레임 연결(frame bridging), 프레임 전개(frame amplification), 프레임 확장(frame extension), 프레임 변환(frame transformation)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세 가지 차원-개인, 운동조직, 사회-에서의 동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과정을 뜻한다(Snow *et al.*, 1986). Klandermans (1992)도 비슷한 맥락에서 세 가지 차원에서의 서로 다른 프레임 구성 방식을 제시했다. 즉, 사회적 차원에서의 담론구축, 사회운동조직 차원에서의 설득적 의사소통,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의식고양이라는 프레임 구성은 사회운동이 여러 스케일에 걸쳐 역동적으로 조직됨을 시사한다.
- 4) Buechler(2000)는 전자를 문화적 접근으로, 후자를 정치적 접근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탈마르크시즘적 신사회운동이론 또는 문화적 접근은 신사회운동이론의 개척가들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대표적인 이론가들은 Touraine, Habermas, Melucci, Laclau and Mouffe, Offe, Cohen 등이 있다. 신마르크시즘적 신사회운동이론 또는 정치적 접근은 주로 정치경제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서, Hirsch, Roth, Adam, Steinmetz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 5) Touraine(1985, 1992)은 후기산업사회를 견인하는 주요 과학기술분야로 R&D, 정보처리, 생명공학과 생의학, 대중매체 분야를 들었으며,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의 생산과 분배를 독점하는 과학기술관료 집단이 사회의 지배계급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 6) 최근 신식민주의논의, 페미니즘 등 다양한 사회담론을 바탕으로 비서구 사회의 신사회운동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Alvarez, *et al.*, 1998; Hsieh, 2006; Thapar-Björkert, 2006 등을 참고).

文獻

김유미, 2004, 사회운동의 의제동학 연구: 내린천담과 탐진담 건설 반대운동 사례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진, 2001,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운동의 미시 동원 기제: 총선시민연대와 민주노동당의 사례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춘서, 2005, “대항공론영역으로서 인터넷에서의 대안언론적 요소의 구현에 대한 고찰: 시민단체의 인터넷운용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5(3), 227-272.

윤민재, 2005, “네트워크 시대의 사회운동: 인터넷과 초국적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담론*201, 8(2), 93-129.

이병하, 2000, 총선시민연대를 통해서 본 시민운동 연대형성과 낙천, 낙선운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dams, P. C., 1996, Protest and the scale politics of telecommunications, *Political Geography*, 15(5), 419-441.

Alvarez, Sonia, Dagnino, Evelina and Escobar, Arturo, 1998, *Cultures of Politics, Politics of Cultures: Re-Visioning Latin American Social Movements*, Westview Press, Boulder.

Aminzade, Ronald R., Goldstone, Jack A., McAdam, Doug, Perry, Elizabeth J., Sewell, William H. Jr., Tarrow, Sidney., and Tilly, Charles (eds.), 2001, *Silence and Voice in the Study of Contentious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Billig, M., 1995, Rhetorical psychology, ideological thinking, and imagining nationhood, in Morris, A. D. and Mueller, C. M.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64-84.

Brenner, N., 1997, State, territorial restructuring and the production of spatial scale: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1960-1990, *Political Geography*, 16(4), 273-306.

Brenner, N., 1998, Between fixity and motion: accumulation, territorial organization and the historical geography of spatial scale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6(4), 459-481.

Buechler, Steven M., 2000, *Social Movements in Advanced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Gamson, William A., 1992, *Talking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Delaney, D. and Leitner, H., 1997, The political

- construction of scale, *Political Geography*, 16(2), 93-97.
- Gamson, W. A., 1995, Constructing social protest, in Johnston, H. and Klandermans, B. (eds.), *Social Movements and Cultur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85-106.
- Gitlin, Todd,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y.
- Giugni, M. G., and Passy, F., 1998, Contentious politics in complex societies: new social movements between conflict and cooperation, in Giugni, M. G., McAdam, D. and Tilly, C. (eds.), *From Contention to Democracy*, Rowman & Littlefield, Lanham, 81-108.
- Gregory, Derek, 1994, *Geographical Imaginations*, Blackwell, Oxford.
- Habermas, J., 1981, New social movements. *Telos*, 49, 33-37.
- Habermas, Jergen,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2*, Beacon Press, Boston.
- Harvey, David, 1982, *The Limits to Capital*, Blackwell, Oxford.
- Harvey, David, 1985, *The Urbanization of Capital*, Blackwell, Oxford.
- Hasson, S., 1997, Local cultures and urban protests, in Pile, S. and Keith, M. (eds.), *Geographies of Resistance*, Routledge, New York, 236-257.
- Hirsch, J., 1988, The crisis of fordism, transformations of the "Keynesian" security state, and new social movements, *Research in Social Movements, Conflicts and Change*, 10, 43-56.
- Hooks, Bell, 1990, *Yearning: Gender, and Cultural Politics*, South End Press, Cambridge.
- Hsieh, Jolan, 2006, *Collectiv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Identity-Based Movement of Plain Indigenous in Taiwan*, Routledge, New York.
- Jenkins, J., 1983,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nd the study of social moveme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527-553.
- Jenson, J., 1995, What's in a name? nationalist movements and public discourse, in Morris, A. D. and Mueller, C. M.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07-126.
- Jou, S.C., 2006. 6., Interview(in Taiwan National University, Taipei).
- Jung, Hyunjoo, 2004, *Space, Place and Scale in Contentious Politics: the Case of Greenbelt Movements in South Korea between 1998 and 1999*, Ph.D. Thes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Jung, H., 2005, Scale in contentious politics: the case of greenbelt controversy,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8(3), 121-137.
- Kearns, G., 1993, The city as spectacle: Paris and the Bicentenary of the French revolution, in Kearns, G. and Philo, C.(eds.), *Selling Places: The City as Cultural Capital, Past and Present*, Pergamon Press, Oxford, 49-102.
- Keck, Margaret E. and Sikkink, Kathryn, 1998, *Activists Beyond Borders*, Cornell University Press.
- Kelly, P., 1997, Globalization, power and the politics of scale in the Philippines, *Geoforum*, 28(2), 151-171.
- Klandermans, B., 1992, The social construction of protest and multiorganizational field, in Morris, A. D. and Mueller, C. M.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77-103.
- Kurtz, H., 2003, Scale frames and counter scale frames: constructing the problem of environmental injustice, *Political Geography*, 22, 887-916.
- Lefebvre, Henry, 1974, *The Production of Space*, Blackwell, Cambridge.
- Lefebvre, H., 1979, Space: social product and use value, In Freiburg, J. W. (ed.), *Critical Sociology: European Perspectives*, Irvington, New York,

- 285-295.
- Marston, S., 2000,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al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2), 219-242.
- Martin, Deborah, 1999, *Claiming Place and Community: Place Identity and Place-Based Organizing in Inner-City Neighborhoods*, Ph.D. Thes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McAdam, Doug, 1982,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Black Insurgency, 1930-197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McAdam, Doug, Tarrow, Sidney and Tilly, Charles, 2001, *Dynamics of conten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McCarthy, John D. and Zald, Mayer N., 1973, *The Trend of Social Movements in America: Professionalization and Resource Mobilization*, General Learning Press, Morristown.
- Melucci, A., 1980, The new social movements: a theoretical approach, *Social Science Information*, 19, 199-226.
- Melucci, A., 1988, Getting involved: identity and mobilization in social movements,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1, 329-348.
- Melucci, A., 1994, A strange kind of newness: what's new in new social movements?, in Larana, E, Johnston, H. and Gusfield, J. R. (eds.), *New Social Movements: from Ideology to Identity*, Temple University Press, Philadelphia, 101-130.
- Miller, Byron, 2000, *Geography and Social Movement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Nagar, R. and Leitner, H., 1998, Contesting social relations in communal places: identity politics among Asian communities in Dar es Salaam, in Fincher, R. and Jacobs, J. (eds.), *Cities of Difference*, Guilford Press, New York, 226-251.
- Olson, Mancur Jr.,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 Pile, Steve and Keith, Michael, 1997, *Geographies of Resistance*, Routledge, New York.
- Routledge, P., 1996, Critical geopolitics and terrains of resistance, *Political Geography*. 15(6/7), 509-531.
- Routledge, P., 1997, A spatiality of resistances. In Pile, S. and Keith, M. (eds.), *Geographies of Resistance*, Routledge, New York, 68-86.
- Sewell, W. H. Jr., 2001, Space in contentious politics. in Aminzade, R. R., Goldstone, J. A., McAdam, D., Perry, E. J, Sewell, W. H. Jr., Tarrow, S., and Tilly, C. (eds.), *Silence and Voice in the Study of Contentious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51-88.
- Slater, D., 1997, Spatial politics/social movements, in Pile, S. and Keith, M. (eds.), *Geographies of Resistance*, Routledge, New York, 258-276.
- Snow, D, Rochford, E. B, Jr., Worden, S., and Benford, R., 1986, Frame alignment processes, micromobilization, and movemen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 464-481.
- Steinmetz, G., 2002, Regulation theory, post-marxism, and new social movement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6(1), 176-212.
- Swyngedouw, E., 1997, Neither global nor local: "Glob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scale, in Cox, K. R.(ed.), *Paces of Globalization: Reasserting the Power of the Local*, Guilford Press, New York, 137-166.
- Tarrow, S., 2001, Silence and voice in the study of contentious politics: introduction, in Aminzade, R. R., Goldstone, J. A., McAdam, D., Perry, E. J, Sewell, W. H. Jr., Tarrow, S., and Tilly, C.(eds.), *Silence and Voice in the Study of Contentious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1-13.
- Thapar-Björkert, Suruchi, 2006, *Women in the Indian National Movement: Unseen Faces and Unheard Voices, 1930-42*, Sage Publications, New Delhi.
- Touraine, A., 1985,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ocial movements, *Social Research*, 52(4), 749-788.

정현주

Touraine, A., 1992, Beyond social movements, *Theory, Culture, and Society*, 9, 125-145.

Zhao, D., 1998, Ecologies of social movements: student mobilization during the 1989 prodemocracy movement in Beij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May), 1493-1529.

교신 : 정현주, 137-775,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서초래미안 APT, 103-2305

(이메일: jung0072@gmail.com, 전화: 02-591-8777, 팩스: 02-591-8477)

Correspondence : Hyunjoo Jung, 103-2305, Seocho Raemian APT. Seocho 4-dong, Seocho-gu, Seoul, 137-775 Korea (e-mail: jung0072@gmail.com, Phone : +82-2-591-8777, Fax : +82-2-591-8477)

최초투고일 06. 7. 14.

최종접수일 06. 9. 19.